

▶ 지난 94년 10월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창립 1주년기념 총회에서
오세화회장(중앙)이 회원들과
자리를 함께했다.



吳世和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회장)

대덕연구단지내
여성연구원들을
모체로 출범한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3백50여명의 회원들은
과학기술의 저변확대,
과학의 생활화를
추구하며
회원간의 화합을
다지고 있다.

전국 여성연구원들 "和습3년"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과학입국 기술자립의 꿈을 가꾸어온지 20년여, 대전의 대덕연구단지에 근무하는 여성 연구원들의 수가 4백50여명을 헤아리게 된 1993년초였다. 해마다 초에 있는 여성개발원의 여성지도자 신년교례회를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정광화박사와 함께 다녀오면서 그날도 수많은 여성지도자들중에 과학자들이 거의 없다는 것에 아쉬운 마음이었다. 첨단과학이 생활 속으로 다가오고 환경 위기가 심화되는 현실에서, 이제 과학기술력이 국력이라는 말이 실감나고 국민의 과학화, 과학의 생활화가 시급한 과제라서 우리 사회의 취약한 상황이 걱정도 되었다.

대덕단지서 조용한 出帆

1970년대 중반에 착수한 대덕연구단지 조성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 제 2의 도약을 준비해야 할 때로, 대다수 연구원들도 주택조합을 통해 집을 마련, 입주하였다. 대전시는 마침 수년간 준비해 온 첨단과학 엑스포 개장 준비로 부산하

였다. 문민 정부의 출범은 억압받던 계층에게는 부풀은 희망을 갖게 하였고, 여성인력들의 사회적인 활동이 크게 기대되는 분위기가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각 출연연구기관마다 인원동결로 연구여건은 균형을 잃고 있었고, 임시직에는 여성 연구인력이 더욱 늘어나는 추세였으며, 팀단위로의 연구조직 개편으로 대덕단지는 또 한번 슬렁이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도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중진여성연구원 모임에서 여성과학인들의 능력을 결집시켜 사회에 환원토록 할 '여성과학인회'의 결성이 거론되기 시작하였다. 곧 연구단지 내의 각 출연연구기관들에서 조용한 호응이 있었으며 기업연구소와 대학들에 재직중인 과학인들의 참여와 성원으로 이어져, 회의 설립준비 발기인대회를 거쳐 창립을 가 사회할 수 있게 되었다.

과학의 생활화 등 내걸고

본회의 탄생을 많은 분들은 긍정적인

일로 받아 들었다. 그러나 여성과학자들이 연구보다 사회문제, 여성문제에 더 관심을 갖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보인 분들도 있었다. 창의와 근면과 합리적인 추론에 바탕을 두는 과학 탐구에 심취해서 사는 것이 연구자들이고 보면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가 추구하는 바도 정의로운 사회의 실현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덧붙여 여성과학인회가 추구하는 바는 과학기술의 저변확대와 과학 기술지도자 육성, 과학의 생활화이다. 그리고 가사와 육아를 함께 책임져야 하는 여성연구원들의 아기들을 밝고 유능한 차세대 인재로 키우는 일에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을 쏟을 것이다.

여성과학인회의 회원들은 전문 과학인력(회원자격 : 이공계 학사후 전문직 3년 이상)들로서 실무에 탁월한 일꾼들이라는 점외에는 소속기관, 전공분야, 출신학교, 연령분포, 수학환경 등 경험, 세부전문, 장기 등에 있어서 매우 다른, 그래서 모여서 협력할 때 대단한 능력을 보일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어서 복합적인 과제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가능한 장치를 제공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회의 의견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문의 연락 주시기 바란다(연락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우체국 사서함 107호 한국화학연구소 염료연구실, Tel : 042-860-7650, Fax : 042-860-7669). 아직은 회원이 4백명이 못되고 있어 보다 많은 여성과학자들의 참여를 바란다. 특히 많은 선배님들과 선생님들의 지도와 후원을 당부드리며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임원진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회장 = 오세화(한국화학연구소)

△부회장 = 정광화(한국표준과학연구원), 이미자(한국인삼연초연구원) △이사 = 이해초(한국원자력연구소), 조

남숙(충남대학교), 유항숙(KIST 유전공학연구소), 인소란(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박순희(KIST 유전공학연구소), 김해숙(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춘희(시스템공학연구소), 심숙이(한국전자통신연구원), 안영숙(한국표준과학연구원-천문대), 박희숙(국방과학연구소), 이공주(이화여자대학교), 최일영(한국화학연구소), 박광자(국립공업기술원), 정명희(한국화학연구소), 오세종(서울시보건의환경연구원), 이효숙

(한국자원연구소), 유영숙(KIST 도핑컨트롤센터), 박정옥(력키기술연구원), 김재은(한국과학기술원), 김애리(력키기술연구원), 이은숙(이은숙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이밖에도 편집은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김유미씨, 연락은 한국화학연구소의 김진수씨가 맡고 있다.

「숨겨진 재능을…」 책도 펴내

과학자들은 오랜 기간의 수학과 연구생활로 인간사에 무관심하다는 평들을 한다. 이 때문에 인력관리, 기관운영에 문제점이 있다는 말들도 한다. 그러나 2천여개가 넘는 이공계 연구기관과 그보다 훨씬 많은 연구부서와 연구팀들의 운영을 과학자들이 담당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는가? 효율적인 연구,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는 과학자들이 경영관리 자질을 키우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로 생각된다.

이에 본회에서는 미국에서 기업 간부들의 경영관리 교육에 교재로 사용되었다는 책을 선택해서 공동번역, 출판해 보았다. 『숨겨진 재능을 찾아내는 기쁨 - 함께 성공하는 비결』. 숨겨진 재능은 자신을 비롯하여, 자녀, 이웃, 제자, 연구팀원 등 누구나의 재능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성장하는 사람들과 자라나는 사람들이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 일독을 권하고 또 가능한대로 실천해 볼 것을 추천한다.

생활 속에서 필요한 과학지식을 이해하기 쉽고 친근하게 소개하는 일, 과학기술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는 것, 과학자들이 긍지를 갖는 분위기 조성 등에 노력하여 군사력, 경제력등 국력의 바탕이 되는 과학기술력의 강화에 본회의 의지를 모을 것이다. 관심과 성원 당부드린다. ㉞

〈표〉 기관별 회원분포

기관명	인원수
국립공업기술원	9
국방과학연구소	8
금호화학연구소	4
기상청기상연구소	6
기초과학지원센터	1
도핑컨트롤센터	5
력키기술연구원	20
삼성종합화학	9
서울시보건의환경연구원	2
시스템공학연구소	2
에너지관리공단	2
유전공학연구소	28
이화여대	5
전남대	4
특허법률사무소	23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
한국과학기술원	2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3
한국원자력연구소	20
한국인삼연초연구원	12
한국자원연구소	10
한국전자통신연구원	46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1
한국해양연구소	3
한국화학연구소	45
한화그룹종합연구소	5
한호과학기술원	3
기타(학교)	19
기타	39
합계	350